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구기종목에서 선전 이어가

배구 남성고 결승 진출
탁구 여대부 박민주 금
전주시민축구단, 축구
남자일반부 3위 차지

전북선수단이 전북지역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배구와 농구 등 구기종목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축구 남자일반부와 럭비 일반부 경기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또한, 탁구 여자대학부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개인전보다 단체전에 가산점을 주는 전국체전 규정상 구기종목의 성적은 전북의 종합순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익산 남성고는 16일 익산 전북기계공고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남고부 준결승전에서 전주 동명고를 3-1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익산 남성고는 1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구미 현일고와 금메달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같은 날 전북제일고는 정음국민체육센터에서 청주공고와 핸드볼 결승 진출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전주고는 농구 남고부 경기에서 긴 접전 끝에 청주 신흥고를 94-8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다. 탁구 여자대학부에서는 박민주(군산대)가 결승에서 조안나(청주대)를 세트스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한창인 16일 전북 익산시 배산축구공원에서 축구 남자일반부 준결승 전주시민 축구단과 목포시청 축구단의 경기가 실시된 가운데 전주시민 축구단 김희성 선수가 수비수의 공을 빼앗고 있다.

어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박민주는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여유있게 최정상에 올랐다. 전북도내 유일 남자 실업축구팀인 전주

시민축구단은 익산 배산축구공원에서 열린 축구 남자일반부 준결승전에서 전남의 목포시청에 2-3으로 석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럭비 일반부 경기에서는 전북 팀인 상무

가 경북의 포스코에 패했다. 3~4위전이 없는 전국체전 특성상 준결승전에서 패해도 동메달을 받는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8일까지 치러진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 응원 보태
'힘내라... 싸워라... 이겨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대회가 지난 13일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 공무원들도 응원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16일에는 기획실과 행정복지국, 의회사무과, 보건국의료원,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직원들이 남·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를 관람하며 각 지역을 대표해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17일에는 산업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맑은 물 사업소와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직원들이 단체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전국 체전 태권도대회가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라며 "태권도원을 찾아와 경기를 펼치는 전국 대표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태권도 성지의 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가 16일 제99회 전국체전 역도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진안군청 역도부를 격려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군청 역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2의 전병관 배출하도록 유망주 키울 것”

유동주·박민호 등 전국체전서 선전
이항로 진안군수, 군청 역도부 격려

이항로 진안군수가 16일 제99회 전국체전 역도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진안군청 역도부(감독 최병찬)를 격려했다. 진안군청 역도부는 지난 12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역도 85kg급 경기에서 유동주(25)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또한 77kg 박민호(22) 선수가 용상에서 4위, 85kg급 박무성(23) 선수는 용상 6위, 105kg급 이승준(19) 선수가

합계 9위에 올라 가능성을 보였다. 이날 이 군수는 "가득이나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역도부가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앞으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찬 감독은 "군민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더 힘을 낸 것 같다"며 "진안에서 제2의 전병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유망주 육성과 지도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전국체전 3관왕 유동주 선수에게 연봉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회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전국체전 씨름 선수단 격려

유진섭 정읍시장이 16일 제99회 전국체전 씨름 경기가 펼쳐진 연지동 정읍체육관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관계자와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치고 땀 흘린 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전북대표단으로 출전한 정읍시청 단종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과 경남대표단과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열린 응원진도 펼쳤다. 한편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이달 12일 시작했다. 오는 18일까지 14개 시군 73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에 걸쳐 뜨거운 열전이 펼쳐지는데, 17개 시도 선수단과 이북5도 선수단,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3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장애인체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지 12개 시군 33개 경기장에서 26개 종목이 펼쳐진다. 8,500여 명이 참가해 한계 없는 감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읍에서는 전국체전 핸드볼(국민체육센터)과 씨름(정읍실내체육관), 장애인체전 사이클(정읍시 일원)과 유도(국민체육센터)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체전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예술제, 대중예술공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정읍사진작가회원전, 한중국제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여러분의 곁엔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NH Nonghyup **장수군 농협일동**

•농협장수군지부 지부장 박경준 •정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곽점웅